

우리 江山의 破滅을 막자

金 憲 奎

(韓國 國立公園協會 理事)

산에가도 질서를 지키고 휴지 빈병등을 마구 버리지 않도록 막거나 휴지줍기를 하는 것은 淨化運動이고 자연보호의 근본적 의의는 自然生態系를 보존하는데 있는 것이다. 자연계는 無機環境(태양, 물, 공기, 토양등)→生産者(녹색식물)→消費者(초식동물→육식동물)→分解者(세균, 곰팡이 등으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이동 순환 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자연생태系는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 均衡이 깨지지 않도록하는 自然保護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숲이 우거진 자연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므로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는 현대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오는 靈感은 창의력을 자극하므로 정신의 活力素가 되며 아름다운 江山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深淵이기도하다. 自然保護를 위해선 공원법 산림법 문화재보호법등 기존법의 실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연환경보존법을 따로 제정하여 주말마다 야외로 나가는 휴양객과 관광객들의 자연파괴도 규제하고 외국관광객들의 動植物採集도 금지돼야 할 것이다. 美國에서는 原始地域 보전법이 지난 94년 제정되어 현재 1백33개소의 保全지역이 지정되어있고 日本에서는 72년에 自然環境保全法을 제정하여 1백85개소의 保全지구를 지정하였으며 西獨에서는 9백50개소의 自然保存지구 이외에도 6대도시 근교에 레크리에이션 모형을 만들고 都市人들의 휴양과 자연보호를 병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國會에 상정된 환경보전법은 公害防止에만 치중하고 자연환경의 보존은 소홀히 다룬 듯한 느낌을 준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연을 그리워하는 향수에 젖어있는 존재이다.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野生

地가 모두 없어진다면 子孫들의 정신은 말라버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 法에는 마땅히 民間團體의 육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自然保護와 관련있는 민간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연보호 汎國民運動本부를 탄생시켜야할 것이고 政府는 이를 뒷받침해줘야 될것으로 생각된다. 國民이 총동원 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郡單位로 自然保存地區 1개소를 지정하여 각고장의 科學文明과 産業이 발달하여 人工環境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自然環境은 파괴일로를 걷고 있으니 2천년 대에가면 많은 사람이 癌 또는 다른 불치병이나 정신분열증환자가 되리라 보고 예언하는 學者가 나올 정도이다. 70년대는 環境年代라고 한다. 유럽 각국에서는 70년을 環境의 해로 지켰고 미국에서는 環境교육법을 제정하였으며 日本에서는 東京 상공에 스모그 현상이 나타나 中高校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쓰러지는 사태가 일어났고 東京에서 市販하는 쌀속에서 카트린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70년 말에는 非常國會가 소집되어 公害防止法을 개정 강화하는 동시에 14개 公害關係法을 무더기로 통과시키는등 環境보호 문제에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 72년 6월에는 人間環境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어 人間環宣言이 발표되었다. 이 선언이 발표되자마자 日本은 동년 7월1일 環境廳을 창설하였고 세계각국은 경쟁이나 하듯이 環境廳을 新設하였으며 自然環境保全에 주력하게 되었고 學校教育은 環境教育으로 탈바꿈시키게 되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다. 自然을 教材로 이용하려는 새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초부터 半世紀에 걸쳐서 이루어졌지만 존·로크(1632~1704년)의 經驗主義 잔·자크·루소(17

~72년)의 自然主義 임마누엘·칸트(1724~1804년)의 相互作用主義, 요한·프리드리히·헐바트(1776~1841년)의 郷土學제창 찰스·다윈(180~82년)의 進化論등은 환경을 강조한 先覺者들의 철학과 교육이론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先驅者들의 논리를 복습할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의 自然環境은 파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環境教育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의 교육내용을 보면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는 自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하고 中學校에서는 연구반을 조직하고 주어진 과제를 실습하며 高等學校에서는 物理, 化學, 生物, 地理등의 教科內容을 개혁하여 환경을 이해시키며 生態學을 도입하는 등

시에 자연에 대한 태도와 당면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르쳐 自然觀確立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 工場廢水와 原油를 운반하는 탱커의 破船등으로 바다의 生物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海中公園의 設定을 각국이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1975년 5월에는 日本 東京에서 제1차 國際海中公園회의가 개최되어 바다의 보호를 호소한바도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環境廳을 창설하여 말없이 닥쳐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알 림

1978年 1月 28日 漢南club會議室에서 開催된 理事會 및 定期總會 委任事項에 대한 缺員理事(定款 第9條에 規定된 理事定數 15名中 缺員理事 6名)補強 및 當然職顧問 選出이 1978年 2月9日 同場所에서 運營委員(5人委)會議結果 다음과 같이 補強理事 및 顧問이 選出 되었음을 會員諸位께 알려드립니다.

□ 理 事 □

1. 金 一 煥 : 韓進觀光 株式會社 社長
前 交通部長官
2. 朴 暻 遠 : 前內務·交通·遞信部長官
3. 鄭 文 基 : 文化財委員, 前釜山大學長
4. 高 範 俊 : 產學協同財團事務總長
前 韓國銀行副總裁
5. 林 慶 彬 : 韓國林學會 會長
서울農大教授
6. 安 元 泰 : 韓國產業開發研究所常務
本協會 事務局長

□ 顧 問 □

1. 李 德 鳳 : 韓國自然保存協會 會長
2. 昔 泉스님 : 大韓佛教 曹溪宗 總務院長
3. 李 善 根 : 韓國文化財保護協會 會長
4. 朴 時 憲 : 韓國宗合造景公社 社長
5. 金 佐 謙 : 國際觀光公社 社長